

여름 먹거리 가격 줄줄이 상승세 과일·감자·계란 수급조정 총력

농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대응

폭염·일조량 감소로 수박값 급등
양구·봉화 물량 이달 하순 출하
고랭지감자 부진에 수입 추진
계란, 생산량 늘어 가격 안정
닭고기 수요 증가에 태국산 대체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치솟은 수박의 수급동향과 관련해, 이달 하순을 기점으로 출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을 비롯한 여름철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5일 올해는 여름 농축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상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설명회를 통해 “오늘 아침 당·정 간담회에서도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안정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며 “당은 물가안정 TF(전담반)를 구성해 대응 중이고 정부도 현장 상황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들어 수박 값이 큰 문제다. 수박은 폭염에 따른 수요 증가 및 5~6월 일조시간 감소에 따른 출하 지연 탓에, 전년대비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출하물량 확대 시기는 7월 하순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작황이 양호한 강원 양구, 경북 봉화, 전북 고창 등에서 출하 물량이 이달 하순부터 확대되고, 충북 음성 2기작 수박도 출하가 시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수박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작되면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은 지난 달 이후 기온이 상승해 생육을 회복하고 있어, 향후 공급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감자는 현재 유통 중인 노지 봄감자(생산량의 65%)의 경우 평년 대비 2% 증가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 다만 고랭지감자는 면적이 줄고 가뭄으로 생육 부진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랭지감자 회복을 위해 관수 지도와 함께 계약재배 물량 1만2000톤(t)을 시장에 공급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저율 관세(TRQ)로 물량 최대 3200t도 수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다음주 입찰을 시작해 4분기 중에는 감자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축산물은 폭염으로 일부 가금류가

폐사했는데, 농식품부는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계란은 일평균 생산량이 4821만 개로 평년보다 높고 가격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최대 1000원(30구 기준) 정도 낮추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 고온피해는 4만 마리 정도로, 8월 생산량은 작년 대비 조금 감소하겠지만 평년 대비로는 5%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3개월 7~8월 계란수요는 연평균 대비 6.2%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날 등으로 계절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전·평년 수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산 수입 차질에 대비해 태국산 4000t이 7월 중순부터 공급되고, 8월부터 브라질산도 정상 공급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벤츠·BMW 등 8만대 배출가스 결함 리콜

환경부, 51개 차종 부품결함을 초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차량 가운데 배기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생한 8만2537대를 대상으로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자동차 제작·수입사 5곳의 51개 차종에 대해 의무 리콜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리콜대상인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 코리아 ▲GM아시아파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 ▲한국GM 등이다.

해당 제작·수입사의 차량 51종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같은 해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전체 판매 대수의 4% 이상일 경우의

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한다.

이번 의무적 리콜 차량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BMW 520d는 응축수 형성으로 센서류에 손상이 있었다. 벤츠 S580 4MATIC에서는 연료 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에서 연료가 흘렀다.

포드 링컨 코세어 2.0 등은 정화조절 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돼 증발가스가 누설됐다. 또 한국GM 크루즈 1.8 등은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가 파손됐고, GM아시아 캐딜락 CT4 등은 정화펌프 작동에 불량이 있었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할 예정이다.

의무 리콜 대상 외에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2605대에도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 자체적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 정부 에너지정책 차질없이 추진”

한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점검
전력망 신뢰도·안전성 등 강조

한국전력이에너지고속도로구축과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 등 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김동철 사장은 14일~16일까지 사흘간 호남과 강원 지역 주요 전력망 건설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송전선 설비 공정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직접 챙겼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전이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기반 확충, 전력 피크 대응력 확보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이뤄졌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과 수도권·첨단산업단지를 고압 송전망으로 직접 연결하는 국가사업이다. RE100 대응, 첨단산업단지 전력 안정성 확보, 지역 간 계통 불균형 해소 등을 목표로 한 새 정부 핵심 에너지 공약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 14일 신장수변전소를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전

첫 날인 14일 김 사장은 호남권 신장성변전소와 신장수변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5킬로볼트(kV) 변전소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김 사장은 “해당 변전소들은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부권 계통과 연계하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허브이자 핵심 인프라”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적기 준공과 품질 확보를 통해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기안전공사

BESS 안전성 높인다

극한환경 실증 착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하는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 기술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기안전공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지난 10~11일 이 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삼성SDI,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솔루션 등 17개 참여기관 소속 연구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에 이르는 극한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BESS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BESS는 배터리에 저장한 에너지를 필요 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스공, ‘온누리 실버 나눔’ 본격화

지역 어르신에 일자리 제공
독거노인·장애인 반찬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한국가스공사가노인일자리창출과 지역 복지 증진을 동시에 겨냥한 대표 사회공헌 사업 ‘온누리 실버 나눔’을 본격 가동했다.

가스공사는 15일 대구지역 내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한 ‘2025년 온누리 실버 나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조리해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까지 확인하는 식생활·돌봄 복합형 일자리 모델이다.

올해 가스공사는 총 2억 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며,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을 주관한다.

대구지역 10개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에 참여하며, 대상자 모집을 마친 상태다. 온누리 실버 사업단은 오는 12월까

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독거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으로 확대해 사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2019년부터 해당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금까지 어르신 291명에게 일자리를, 취약계층 899명에게 건강 밑반찬을 제공했다.

가스공사는 본격 활동에 앞서 대구시위생정책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밑반찬 조리시설에 대한 합동 위생점검도 실시했다. 조리 환경과 식재료 보관, 복장 착용 등 위생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장 피드백이 이뤄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인 일자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고려한 고효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민 체감형 ESG 실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협, 전국서 폭염·재난 대비 나눔활동

‘안전한 여름나기’ 실천

농협중앙회는전국임직원이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과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여름나기’를 실천테마로 정했다고 밝혔다.

7월 테마의 첫 번째 중점활동은 ‘무더위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나눔활동’이다.

농협은 건강식, 생수, 선풍기 등 폭염에 대비한 필수물품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농협 사무소를 무더위 쉼

터로 개방해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중점활동은 ‘재난·재해 대비 안전점검 및 예방 캠페인’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협 임직원들이 지역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재난·재해 예방수칙과 안전 매뉴얼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와 관내 농축협은 ‘행복도시락 삼계탕 나눔행사’를 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